

Story of Michelle

Sapporo Int'l Buldg, 26-1 Kita 4 Jo Nishi 11Chome, Chuoku Sapporo, Hokkaido 060-0004 Japan
Tel: 81-11-221-8851/ Cell: 81-80-3293-6775 michyus@hotmail.com
January & February 2018

"But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the godly for himself; the Lord hears when I call to him. In peace I will both lie down and sleep; for you alone, O Lord, make me dwell in safety." (Ps. 4:3, 8 ESV)

Psalm 4 is also called as "Supplication prayer in the evening". This is a prayer when David was running away from his son Absalom and didn't have any secure places to lie down. David's situation was unsecure and in danger since he always had someone after him seeking for his life. But we could see how peaceful David was in this psalm. The confidence of how Lord set apart the godly. The confidence of how Lord hears when he calls. His confidence in the Lord made him lie down in peace even in the unsecure situations. The Lord's peace made him dwell in safety. We often face same situations like David; very unsecure and in danger. However, like David confessed, we also would like to have the confidence of safety in the Lord. We lie down in peace every night because it is from the Lord through the confidence in Him. I pray that we all have peaceful rest in Him today.

I am on the 5th chemo out of 8 treatments. During the 2nd treatment, I had an allergic respond from IV dripping. It was very tough for me. Thankfully, I was not in shock, but it could be very dangerous for me to keep taking it. So as a result, I ended up not taking any IV dripping, but only on medication which is taking pills. Medicines don't give me hard side effects so it is so much better to take than before. I also could eat more than before. I have 3 more treatments to go. After the 8th one, I will have CT scan test and will know whether I would need further treatments or not. I pray and hope that all the cancer cell would disappear through chemos so I won't need to take any further treatments later on. Please keep pray for me that I could take the current treatments well and all the cancer cells would be removed.

I have very enjoyable month in January because my family and friends visited me. Right after Christmas, my sister and nephew visited me for 3 weeks. My sister cooked for me, cleaned house for me and took care of me very well. It was such a comfortable time for me. Spending time with my nephew refreshes me every day. After my sister left, my dearest sisters in Christ visited me for 2 weeks. They fed me with nice foods. But more than that, we spend lots of time to share how God had blessed us. We shared our prayer requests and prayed together. It was just overwhelming time. I praise the Lord for sending me lots of loving hands.



January was also busy month for Sapporo International Church. Sarang Church college group from Korea sent a short term team for 2 weeks and they did many evangelical ministries. They handed out the tracks every morning in the cold weather. They also prepared Korean Night on 1/19 (Fir). They preformed Korean cultural things such as dance, skit and etc. they also cooked Korean foods to serve. Many people came and enjoyed the dinner and the show. There was also Gyoza night on 1/21 (Sun). It is our annual evangelical ministry prepared by Chinese congregation. We learn how to make Chinese gyoza and make it together. We also cook it together and eat together. It brings us good time to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Many people came that night. We just pray that among these people, more people have interested in Christ and come to Sunday worship service. Many seeds of Gospel have spread and we pray that there would be many fruits as well. Please keep pray for Japan.

February is busy with wrapping up the year 2017. Since there is an Annual General Meeting in March, we are all busy for preparing for it. We need to reflect our ministries and write down the reports, getting all the data, revise the church rules and regulations, and etc. Through the preparation and AGM, we would like to give glory to the Lord. We want to put hearts together and give Him the praise and thanksgiving.

During the AGM on 3/18, there would be the time to discuss about the changes in 2018 and make the votes. Among these changes, the most significant ones are the time changes of Worship Services, Sunday School (children & adults), calling for Assistant pastors. Since SIC is an international church, it is difficult to be one and it is more noticeable with Japanese pastor. We pray that these changes would help us to be united as one and have same biblical values. Please pray for us that we make the decisions with joyful minds as one.



Thank you so much for the prayer, encouragements and support. I pray that every step you take would be the glory to the Lord.

Michelle Lee from Sapporo

Story of Michelle

Sapporo Int'l Buldg, 26-1 Kita 4 Jo Nishi 11Chome, Chuoku Sapporo, Hokkaido 060-0004 Japan
Tel: 81-11-221-8851/ Cell: 81-80-3293-6775 michyus@hotmail.com
January & February 2018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 주신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4:3, 8 새번역)

시편4편은 “도움을 요청하는 저녁기도”라고도 불리는 시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며 편안히 누울 곳도 없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늘 뒤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평안한 마음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신다는 확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부르짖을 때에는 주님이 들어 주신다는 확신. 이러한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편히 눕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그를 평안히 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불안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의 각별한 돌보심에 대한 확신을 갖길 원합니다. 매일 저녁 평안히 잠들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대한 확신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평안함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쉼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8번의 항암치료중 이제 5번째 항암치료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항암치료중 혈관주사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와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쇼크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혈관주사 치료를 받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혈관주사 치료는 중지하고 약물치료만 하게 되었습니다. 복용약은 주사보다 부작용이 심하지 않아 처음보다는 훨씬 편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음식섭취도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져서 잘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3번의 치료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8번째 치료 후에 CT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한지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번 항암치료를 통해서 모든 암세포가 없어지고 더 이상의 치료는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까지 치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암세포가 깨끗이 없어 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월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삿포로를 방문해 주어서 외롭지 않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동생이 조카와 함께 3주동안 방문 하였습니다. 식사도 챙겨주고, 청소도 해주고, 동생의 보살핌을 아주 많이 받은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조카의 재롱도 보면서 많은 쉼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돌아가고 얼마 후엔 기도의 동역자이며 아주 친한 언니들이 한 주 동안 방문해 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많이 사주시고, 무엇보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학창시절 이야기도 나누며, 늦은 밤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누고, 기도제목도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주 큰 격려와 위로가 되는 시간들 이었습니다. 많은 손길들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삿포로 국제 교회도 1월은 바쁜 한달 이었습니다. 한국 사랑의 교회 대학부 단기선교팀이 2주동안 방문하여 많은 전도활동을 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매일 아침 교회주위에서 전도지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1/19(금)에는 코리안 나이트를 준비하여 한국음식과 한국 문화를 통해 전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1/21(주일)에는 중국어예배 주최로 교자대회가 있었습니다. 매해 하는 전도행사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중국식 전통 만두를 함께 만들면서 교제하고, 자신이 만든 것을 요리해서 바로 먹으며 또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전도모임에 오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혹은 흥미를 가지고 교회로 계속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의 열매를 많이 뿌리고 있는데 더불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월은 2017년도를 마무리 하는 준비로 바쁩니다. 3월18일에 교회총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한 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뽑고, 교회 규칙과 규범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이번 한 해를 잘 마무리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교회총회를 통해 전교인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길 원합니다.

3월18일에 있을 총회에서는 2018년도에 있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시간의 변경, 교회학교 (어린이/어른), 부목사 청빙건입니다. 국제교회라는 특성상 하나의 교회로 모이기가 어려운 것을 일본인 목사님이 오시면서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더욱 하나가 되고, 같은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기 위한 변화입니다. 교인들이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기도와 격려와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기도합니다.
삿포에서 Michelle Lee 선교사